

새로 나온 책.....

▲탑과 사방불(김광익 지음)=동서 남북 네곳에 불상을 모시는 사방불 신앙의 기원과 전개, 각 방향에 보신 부처님의 의미를 미루사지 석탑, 범부사 팔상전등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사방불 유적연구를 통해 밝혔다.

〈삼선도교인, 법보시〉

▲대일경 강(권영택 편지)=대일경 각 품에 대한 해설 및 주석서를 소개했다. 대일경은 중기밀교의 세간경인 이익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경전과는 달리, 불교의 궁극적 이상인 성불의 지름길에 대해서 밝힌 경전. 밀교의 교리체계가 수립되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인행, 1만원〉

▲깨달음으로 이끄는 명상(마하세 지음)=위빠사나 수행법의 목적, 수련 방법, 수행으로 부터 얻어지는 효과 등을 설명했다. 지은이는 미얀마의 사사나 예타리 명상센터의 지도자. 부록으로 '엄처경'에서 실한 명상법을 실었다. 정동하 옮김. (경서원, 3천5백원)

▲집에 돌아와 불을 켜다(김신중 지음)=유해 '월간 문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한 저자의 첫번째 시집. 역동적인 불의 이미지를 살려 관념의 세계를 형상화했다. '무량수전 서' '업보' 등 56편 수록. (여인, 4천원)

지자와의 만남

'불교의 이해와 실천' 펴낸 이 중 표 교수

# “삼보귀의는 자유·평화 실천행”

### 아함경 기초로 불교 근본교리 밝혀 불교는 신앙이 아니라 귀의하는 것



이 중 표 교수

〈불교의 이해와 실천〉, 다소 딱딱한 듯 하면서도 다시금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드는 책이 나왔다. (대일경사 펴냄) 저자는 (아함의 중도체계)를 통해 팔정도(八正道)와 연기설을 실천적 중도행과 사상 이론으로서의 중도설로 체계화한 전남대 철학과 이종표 교수.

승가공동체의 평화이며, 부처님이 설한 팔만사천 법문은 삼보에 귀의하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부처님 가르침을 요점의 언어와 사고체계에 맞게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불교가 현대사회의 제반문제, 즉 환경오염, 인간성 상실, 경쟁의 심화와 반목 등 시대적 문제에 대해서도 부처

입니다. 신앙이란 말에는 위와 아래가 나누어 있다는 의미가 숨겨져 있으니 이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어긋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 책이 새로운 불교이론을 펼치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불교의 목적을 알고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 “환경오염·인간성 상실 시대

#### 부처님 가르침 따르면 저절로 해결”

〈삼보 가운데 으뜸으로 꼽히는 불보 곧 부처를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참나’ 부처라고 강조한다. 즉,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것은 거짓된 나에 의지해 살아가는 삶에서 참나로 돌아가 살아야겠다는 의미라고 밝힌다. 나아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귀의를 자유 평등 평화의 현대적 가치로 재해석한다.

“불보는 참나를 찾아 얻어지는 자유, 법보는 연기법에 따라 우리는 한몸이라는 공동, 승보는 계율에 의해 이어지는

이 교수는 이것을 아함경에서 찾는다. “혼란한 때에는 근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중불교가 추구하는 자리아타(自利利他)의 보살정신도 근본불교와 접목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이 책에서도 불교의 근본 뿌리로서의 아함경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성운 기자



“혼란했던 인도사회의 사상·철학을 불교가 정리했듯이 시대에 불교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처님 가르침의 근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 월주스님 '보살사상 경구선집' 이달종 발간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유마경 변화경 화엄경 등 대승경전 가운데서 보살사상의 내용이 담긴 경구들을 가려 뽑아 해설을 덧붙인 〈보살사상 경구선집〉을 12월중 펴낸다.

올바로 전개되지 않으면 한국불교는 겨레의 선조적 구심점 뿐 아니라 그 위상까지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책으로 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보살행이란 진리를 현실속에서 구현시키는 유일하고 위대한 불자의 임무”라며 “이땅에 보살행이

### 조계종 단일계단 '행자교육 한글교재' 펴내

조계종 단일계단은 최근 찬승공덕경(讚勝功德經) 교계신학부행호홍의(교계홍의, 敎界新學比丘行護律儀)를 1권으로 묶어 행자교육용 한글교재로 펴냈다.

습의도감인 철우스님이 한글로 옮겼다. 교계홍의는 일상적인 사찰 생활의 예의와 작법을 계율의 입장에서 밝힌 것으로, '스님앞에 서는 법' '암자에 가는 법' 등 23항목으로 나뉘 466가지의 생활수칙을 설명하고 있다. 해능스님(해인사 율원)이 번역했다.

상의 현황과 건립시기, 양식적 특성을 전담 박물관의 발굴조사와 학술조사를 바탕으로 밝히고 있다.

회·예경산업사)=국내 및 일본 프랑스에 소장된 50여점의 담로문을 318점의 컬러도판에 담아 감로탱의 발생 배경, 미술사적 특징, 감로탱에 담겨진 정신 세계 등을 조망했다.

▶한국의 석조미술(예술·진흥·문화출판사)=불을 재료로 조형된 예배의 대상과 예술 품으로 남겨진 석물에 대한 개괄과 석탑 석불 부도 등의 조형시기 표현양식 신앙·사상적 의미를 363컷의 도판을 곁들여 설명했다.

## ‘신라선종 연구’ ‘운주사’ ‘감로탱’ 등 불서 7종 문체부 추천도서 선정

〈신라선종의 연구〉를 비롯한 7종의 불서가 제28회 문화체육부 추천도서로 선정됐다.

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 사이에 출판된 신간도서 가운데 신라선종 연구 개발과 선양에 기여하고 △학문·지식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기여하는 학술도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법이 탁월한 도서 및 편집·인쇄·장정이 뛰어난 도서를 선정기준으로 삼았다.

재와 고문헌의 기록을 예로 들이 밝혔다.

▶인도사(역사·조길태·민음사)=기원전 3000년 인더스문명의 발생부터 2차대전 이후 인도공화국의 탄생까지의 인도 역사를 다룬 최초의 체계적인 인도사. 불교의 출현, 불교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 순위 | 도서명                | 저·편자      | 출판사   |
|----|--------------------|-----------|-------|
| 1  | 기도                 | 일 타 호 팀   | 휴 팀   |
| 2  | 도가본이없는데 내가 무엇을 깨었나 | 서 암 동 지   | 동 지   |
| 3  | 소설 등산불             | 석 용 산     | 문학수첩  |
| 4  | 인도불적 답사기           | 호 진       | 불교시대사 |
| 5  | 선의 세계              | 고 형 곤     | 운주사   |
| 6  | 금강경 강의             | 무 비 불 관   | 불 관   |
| 7  | 영원한 자유의 길          | 성 철 장 각 각 | 장 각 각 |
| 8  | 사찰의 벽화 이야기         | 권 영 한     | 전원문화사 |
| 9  | 방한암 선사             | 김 호 성     | 민 족 사 |
| 10 | 보문품 강화             | 범 령 관 음   | 관 음   |

구입문의: (02)737-0695

문체부는 이번엔 선정된 추천도서를 구입하여 공공도서관과 해외문화원 청소년관련단체에 배포한다.

추천불서는 다음과 같다. (추천분야·저자·출판사)

▶임진왜란은 문화전쟁이다(역사·김문길·해안)=임진왜란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의 탁월한 문화를 부러워하여 일으킨 ‘문화야탈전쟁’이라는 견해를 일본의 국보급 문화

재와 고문헌의 기록을 예로 들이 밝혔다.

▶인도사(역사·조길태·민음사)=기원전 3000년 인더스문명의 발생부터 2차대전 이후 인도공화국의 탄생까지의 인도 역사를 다룬 최초의 체계적인 인도사. 불교의 출현, 불교문화의 발전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신라선종의 연구(종교철학·성본·민족사)=‘신라선종과 구함설(鉤函說)’ ‘정종무상선사 연구’ ‘신라선종의 제문제’ 등의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에 선이 처음 전래된 신라시기 선종의 여러 문제점을 주제별로 나누어 정리했다.

▶운주사(종교철학·이태호·대일사)=천불천탑으로 알려진 화산 운주사의 석탑과 불

### 명사추천



### 데스카의 '만화 붓다'

여기, 절대 무화(無化)의 생명계에 참생명의 씨앗을 뿌리고간 한 인간이 있다. 훗날 붓다가 된 그의 본래 이름은 '고타마 싯다르타'이고, 한 작은 나라의 왕자였다. 그러나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은 비교적 늦은 편이었다. 어쨌든 그의 생애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꿈꾸기 시작한 80년대 초였다. 나는 그의 육성을 듣고 싶었고, 그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싶었다.

조해 낸 인간 군상의 밀림 속에서 길 잃은 짐승처럼 헤매어 다녔다.

〈만화 붓다〉는 한 우주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였다. 싯다르타라는 어린 별이 어떻게 우주의 중심인 태양(붓다)으로 자리잡았는지, 아울러 그 태양을 축으로 하여 다른 무수한 인간 별들은 어떠한 인연으로 생성되고 소멸되어 가는지를, 데스카는 뜨거운 인간애와 그 시대에 대한 철저한 고증을 바탕으로 재해해 놓고 있었다. 데스카의 반짝이는 상상력



성낙주 (소설가)

내 작업은 일찍이 신화의 잡초더미에서 그를 구출하는 쪽으로 정해져 있었다. 왜냐하면 소설의 세계에서는 신이 아닌 인간이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다. 국내외의 많은 책들이 내 책상머리에 쌓여 갔다. 내가 찾는 것은 신적으로서의 붓다가 아니라, 인격으로서의 붓다였다. 현대 그를 다룬 것의 모든 전기의 숲에선 온통 전설과 비약만이 무성한 뿐, 정작 그의 살아 있는 숨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대의 정신을

### “대중에 친근한 만화형식 빌려

#### 우리 곁에 가까이 오신 부처님”

담고 있거나 짧은 세대를 위한 붓다 전기가 드물었다. 대부분 팔상륙의 설화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연대기조차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내 눈에는 그가 다만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경전 속에 갇혀 잠을 자는 거인 같았다. (그 과정에서 〈고풍 불타전〉이나 〈인간 붓다, 그 위대한 삶과 사상〉, 〈불타의 세계〉 등은 커다란 위안과 도움을 나에게 주었다.)

의 산물인 〈만화 붓다〉. 그것은 우리를, 만화라고 하는 대중에게 가장 친근한 형식을 통해 이른바 붓다시대의 가장 깊숙한 지점까지 인도해 줄 뿐만 아니라, 붓다라는 한 인격체를 우리 곁으로 불러낸 위대한 생명 찬가이다. 그러하여 우리는 그속에서, 사 람으로 태어나고 살아간 혹은 죽어간, 붓다를 비롯한 수많은 존재들의 힘겨움과 슬픔을,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까지를 그야말로 입술을 깨우는 아픔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던 중 나의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90년대 초, 내 앞에 홀연히 나타난 여덟 권짜리 책 한 권, 그것은 데스카 오사무라는 일본 만화가의 〈만화 붓다〉였다. 도대체 붓다라는 거룩한 인격을 한낱 만화로 어떻게 형상화할 수 있던 말인가. 그러나 첫장을 넘기면서부터 나는 그 아가자기하고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림 속으로 흠뻑 빨려들어 갔다. 그리고 데스카가 새롭게 창

좋은 책과의 만남은 항상 좋은 사람과의 만남만큼이나 반갑고 또한 감동적이다. 더욱이 그것이 어린 형태를 주면 에게서도 어린 인간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저절로 두 손을 얹어 모시고 그 자취를 좇아 허겁지겁 걸게 되리라.

# 30개국 125선원에 '전법 주장자'

### 송산 스님 11 권

1992년 10월 10일, 미국 프로비덴스 캄벌랜드 다이아몬드 언덕에는 화사한 햇살이 불광(佛光)처럼 쏟아져 있었다. 아침 7시부터 13명의 대지 가운데 우뚝선 평화의 탑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2년만에 그 웅장한 자태를 드러낸 탑의 준공식을 하는 날이기도 했지만 재미 흥법원 프로비덴스 선선터 개원 20주년 기념법회도 있었다. 거기다 송산행원스님의 제자로는 처음으로 3명의 선사가 태어나는 날이기도 했다.

### 모든 이들의 안락을 위하여

#### 지구촌 전법이야기

### 세계 불자 4년마다 '세계 일화' 대회 美 흥법원 평화의 탑 준공 법석 장엄

## “지구상에 얼어붙은 마음 녹일 곳 너무 많아”

제자들의 수를 헤아린다는 것은 다소 어리석은 짓일만큼 의미가 없었다. 그저 누가 물어보면 ‘수만명이 되겠지요’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10시가 되자 평화의 탑 준공식이 바로 시작됐다. 각국의 제자들과 한국의 스님들이 참석했고 캄벌랜드의 고산나담 불교지도자들도 대거 동참해 대규모 야외법석을 장엄했다.

다시 웅장스런 법석은 엄숙한 전법의 법식으로 옮겨졌다. 푸른 잔디밭에 마련된 전법석에는 1천여 사부대중이 정좌하고 앉아 무거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이제 행원스님의 이방인제자 3명의 선사가 탄성하는 손이 된 것이다. 이들과 함께 삭발제자가 된 사람은 25명이나 되었다. 세계의 불자들이 수덕사 도량을 가득 채우고 세계일화의 법향을 드

리는 이 법회는 만공스님의 세계 일화 정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자리다.

스님이 가는 곳은 어디든 법석이 마련 됐다. 제자들이 전법의 마당을 넓히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을 접하는 지구촌의 생명들이 모두 경건한 합장을 하는 한 스님의 법석은 먼지가 쌓일 틈이 없는 것이다.

전법을 받고 기뻐하는 3명의 선사들을 보며 행원스님은 문득 85년도 가을에 중국 북경 시내의 고찰 법원사에서 만났던 전인(傳印)스님 생각이 났다.

그 고백처럼한 절에서 행원스님

고 없음을 가리지 않고 전법의 현장을 달려갈 것을 행원스님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

늘어나는 제자들, 늘어나는 선원과 신도들. 그것은 행원스님이 또다시 전법의 길로 나서야 하는 이유였다. 아직 스님이 가서 부처님법을 전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곳은 지구상에 너무나 많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가야할 곳, 반드시 가서 법석을 펴야할 곳이 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한반도의 북쪽 땅이다. 붉은 깃발이 휘날리는 공산 국가를 다 가뒀으나 오직 한 곳 가



1992년 10월 10일 프로비덴스 선선터에서 평화의 탑 준공식과 선사 3명을 배출하는 전법식이 열렸다.

임연태 기자